

## ◇다한증 환자에서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방법에 따른 수술결과의 임상분석

박철현, 김정철, 현성렬, 김상익, 박국양, 김주이

가천의과대학 부속 길병원 흉부외과

**배경 및 목적 :** 다한증 환자에서 2mm흉강경을 이용한 교감신경절제술이 최근에 탁월한 결과를 얻고 있으나 술후 보상성다한증이나 늑간신경통 등의 부작용이 초래된다.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흉부교감신경절제술과 흉부교감신경절분리술을 비교하여 술후 결과와 부작용을 분석 비교하고자 한다.

**방법 :** 1997년 1월부터 1998년 8월까지 흉강경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119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초기 58 명은 교감신경절제술[sympathectomy]을 , 후기 61 명은 흉부교감신경절분리술[sympathicotomy]을 시행하였으며 각각 I 군, II 군으로 나누어 I 군의 평균연령은 24 7.2세, 수부다한증이 55례, 안면다한증이 15례이었고, II 군은 평균연령은 24.9 9.3세, 수부다한증이 57례, 안면다한증이 6례이었다.

**결과 :** 수술한 전 레에서 술전에 특정부위의 과도한 발한은 소실되었으며, 수술시간은 I 군에서 평균 109 52.2 분, II 군에서 42.2 16.2 분 이었으며 [P 값 < 0.05 ], 보상성다한증은 I 군에서 66 %[생겼지만 지장없다 9례, 견딜만하다 10례, 불편하다 8례, 힘들다 2례], II 군에서 63%[생겼지만 지장없다 24례, 견딜만하다 17례, 불편하다 2례], 늑간신경통은 5례, 2례, 기흉은 4례, 8 례였다.

**결론 :** 2mm흉강경에 의한 흉부교감신경절분리술은 과도한 발한의 감소 및 미용적 효과에서 탁월한 결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수술시간의 단축, 신경절을 많이 절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심한 보상성다한증이나 늑간신경통 또는 호너씨 증후군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.

책임저자: 박철현(가천의과대학 부속 길병원 흉부외과)

발표자: 박철현(가천의과대학 부속 길병원 흉부외과)